

청주 소년원

○ 매체 : 중부매일(2026. 6. 1.)

○ 제목 : [특집기사] 검정고시부터 직업훈련까지...처벌 아닌 교육 중점 청주소년원

검정고시부터 직업훈련까지... 처벌 아닌 교육 중점 ‘청주소년원’

전년 총 224명 자격증 취득·진학 상담도
상당수 가정서 학대·방임·빈곤 등 경험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문제 해결
원예·캘리그래피 수업 등 정서 안정 도와

[중부매일 손수민 기자] 최근 도내 학교 안팎에서 흉기 소동이 잇따르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범죄소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보호소년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청주소년원을 찾아 학생들의 일상과 교육 현장을 들여다봤다. / 편집자

담장 안의 학교



▲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 전경.



▲ 보호소년들이 검정고시 수업을 듣고 있다. / 청주소년원

높은 담장을 지나 청주소년원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복도 곳곳에는 밝은 색감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거나 실습실에서 직업훈련에 집중하고 있었다. 교정시설 특유의 긴장감보다는 학교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청주소년원은 법무부 소속 여성 보호소년 전문 기관이다. 법원으로부터 9호(단기 소년원 송치) 또는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받은 여성 청소년이 일정 기간 생활하며 직업교육, 인성교육을 받는 곳이다.

정원은 80명이지만 지난달 29일 기준 110명이 생활하고 있어 수용률은 138%에 달한다.

청주소년원은 현재 청주미평여자학교라는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보호소년의 교육과 재활에 중점을 둔 기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생활실과 직업훈련 실습장, 이론교육장, 상담실은 물론 강당, 체육관,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교직원 57명과 공무원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기술을 배우며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학교처럼 배우고 기술을 익히다



▲ 보호소년들이 제과제빵 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상처를 치유하는 교육



▲ 보호소년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을 만들었다.

기상 음악이 흐르면 학생들은 침구를 정리하고 아침 식사 후 오전 9시 담임교사의 조회를 거쳐 하루 7교시 수업을 듣는다.

저녁에는 복습과 편지 쓰기 등 자유타 시간을 가진 뒤 오후 8시 30분에 일기를 쓰며 하루를 성찰하고 9시에 취침한다.

교육 과정은 학업과 직업교육, 인성교육으로 구성된다.

단기 소년원 송치 학생들은 바리스타와 네일아트 과정을 거치고, 장기 소년원 송치 학생들은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뷰티메디컬 과정에서 전문 기술을 익힌다.

교육은 단순 체험 수준을 넘어 국가기술자격증과 민간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운영된다.

실제 성과도 적지 않다.

지난해 국가기능사 67명, 민간자격증 157명 등 총 22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을 위한 검정고시 교육도 활발하다.

퇴직 교사와 외부 강사들이 참여해 수업을 진행하며 입시설명회와 진학 상담도 병행한다.

그 결과 2025년 검정고시에서 63명(중졸 12명·고졸 51명)이 합격해 16명은 대학에 진학했고 10명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올해도 10명이 대학에, 6명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이 밖에도 경제 교육, 마약 예방 교육, 도박 예방 교육, 인문학 강좌, 컴퓨터 교육, 체육활동 등을 통해 사회 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있다.

강문덕 원장은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은 단순히 취업 준비를 넘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느끼게 만드는 과정”이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경험은 재범 위험을 줄이는 실질적 대안이 된다”고 말했다.

청주소년원의 교육은 자격증 취득이나 학업 성취에만 머물지 않는다.

보호소년 상당수가 가정폭력과 방임, 학대, 성폭력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한 점을 고려해 심리 회복과 관계 회복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다.

가족 식사, 쿠키클래스, 심리극을 통한 보호자 특별교육 등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을 운영하며 단절됐던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가족사진 촬영에 대해 강 원장은 “학생들이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나는 여전히 가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며 “힘든 시기를 버티는 정서적 자원이 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 치료와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학생들은 원예수업과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수업 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다.

여성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된다.

보호소년 다수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만큼 매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성 교육 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해 반기별 교육도 진행한다.

사회와 다시 연결되다



▲ KT&G의 후원으로 조성된 상상도서관.

청주소년원은 시설 안에서의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에도 힘을 쏟고 있다.

KT&G의 후원으로 지난해 말 상상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소년보호협의회는 체육대회와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열린 학생·교사·소년보호위원 합동 체육대회에서는 김미령 회장과 이종희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소년보호위원들이 고기와 음료 등 간식을 후원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퇴원 이후의 삶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담임교사 등은 출원 후 6개월 동안 전화와 방문 상담, SNS 등을 통해 생활 적응 과정을 살피며 학생들의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강 원장은 “보호소년 다수가 학대, 방임, 빈곤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데 소년원은 기존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해 악순환을 끊고 가족관계 회복 기회를 제공한다”며 “방치하면 더 심각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청소년을 바로 잡는 마지막 공교육 기회라는 생각으로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문덕 청주소년원장이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청주소년원장으로 취임한 강문덕 원장은 34년간 보호관찰소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무연수원 등에서 근무한 보호처분 분야 전문가다.

취임 후 강 원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공간을 바꾸는 것이었다.

강 원장은 “비품실, 전통예절실을 생활실로 개조해 과밀한 수용 환경을 개선했고 뷰티메디컬반을 신설해 직업훈련 선택지를 넓혔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직업훈련에서 익힌 기술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봉사활동 ‘미평 봉다리(봉사활동 다같이 이룸계)’도 도입했다.

그는 소년원을 처벌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소년원이 처벌의 공간으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공간”이라며 “학업과 직업훈련, 상담과 치료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으로는 중학교를 중퇴한 뒤 청주소년원에서 검정고시와 직업교육을 통해 대학 진학에 성공한 학생을 꼽았다.

그는 “해당 학생은 입원 후 검정고시 특별반에 참여하며 중졸과 고졸 학력을 모두 취득했고 피부미용 국가기술자격증까지 획득했다”며 “이후 1대 1 맞춤형 진학지도를 통해 대학에 합격했는데 당시 조부모가 교사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와서 더욱 인상 깊었다”고 회상했다.

다만 운영 과정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강 원장은 “과밀 수용 문제와 전문인력 부족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재원생의 60% 이상이 정신질환 경험자이거나 치료 중임에도 상담사와 정신건강 분야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대, 폭력, 성범죄 피해 경험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트라우마 중심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영상 편집·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AI 활용 교육 등 미래 직업 환경을 고려한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강 원장은 “퇴원 후 10년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시설 안에서의 변화가 사회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촘촘히 만들어 전국 소년원의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수민 기자 idea2612@jbnews.com